

2017년 5월 26일, 성산읍 오조리 오조리사무소, 송정희 조사.
 현금란(여, 1935년생, 성산읍 오조리)

- 줄거리: 힘센 송장군이 씨름대회를 나가면 항상 소 한마리씩 받아 왔다고 한다. 마을에 연자방아돌이 없으면 한라산에 가서 방아돌을 짚어져서 내려왔다고 한다.

[제보자] 송장군 얘기는 또 자세히 그걸 듣진 안 혀고 가당 오당 뭐, 들으니깐 그거 또 거 자세히 듣도 아니고 넘어가는 소리로 들었지만은.

이제 송장군이렌 허는 어른신이 옛날 그 나이든 어른덜이 곧는 거 보민, 송장군이렌 허는 어른이 힘이 워낙 썰가지고, 힘이 워낙 썰가지고 이제이 씨름을이 운동할 때, 씨름을 가도 훈 번에 손을 탁 해가민 탁 걸영 앞으는 따문에, 씨름부떠 보지도 안 혀고 소 훈 무리 썩 타왓젠 헤여.

경 헌디 또 옛날 한라산에 나무가 이디 많이 엇고 큰 나무가 이디 엇이난, 한라산에 가그네 정 7레 낵 7렛돌 이만이 헌 거, 방에 7찌 7레 노왕 그 7레도구리하고, 춤 그걸 다 지영 왓다 헤여, 한라산에 강, 송장군이.

[조사자] 7렛돌을 지영 왓다는 거?

[제보자] 7렛돌이 아니고 그 앓어그네 그, 방에 닳은 거.

[조사자] 방엿돌을 지영 왓다는 거.

[제보자] 응, 방엿돌을. 한라산에 강 팡 지영.

[조사자] 보통 힘이 썩 사름이 아니구나예.

[제보자] 게난 항상 이제 송장군 송장군. 이제 이디 정근이 어린 애기 7치 살단 어른덜 이제 그 승환이 아방네, 증조 할아버지렌 헤. 이제 그 대가 다 죽어비엿주만은.

- 핵심어 : 송장군, 씨름, 한라산, 정 7레, 방엿돌, 오조리, 장사